

2007년도 조정·중재신청 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조정사건 1,043건 처리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1,043건의 조정신청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청구권별 신청 비율은 정정보도청구 52.8%, 손해배상청구 33.5%, 반론보도청구 11.0%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가 전체 신청건수의 86.3%를 차지했다. 반론보도청구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 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피해구제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매체 MBC-KBS-조선일보-동아일보 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청 증가 추세

신청인은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신청 비율이 전년 대비 4.2%p 감소하였다.

피신청인을 매체유형별로 보면 신문이 60.8%, 방송이 24.0%로 나타났고, 신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도 10.8%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체별 신청건수는 MBC 69건, KBS 67건, 조선일보 39건, 동아일보 33건, 문화일보 32건, 한겨레 31건, SBS 25건 순으로 많았다.

침해유형별로는 명예훼손 953건, 초상권 53건, 음성권 12건, 프라이버시 침해 11건으로 명예훼손 침해가 가장 많았으나, 2005년 93.7%, 2006년 92.4%에 이어 2007년에는 91.4%를 차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손해배상 청구권 도입으로 초상·음성·성명 및 사생활침해 등의 조정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 64.8%로 전년대비 4.2%p 증가, 손해배상 조정액 평균 313만원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는 합의 34.4%, 취하 37.2%, 조정불성립결정 18.6%, 직권조정결정 5.2%, 기각 4.0%, 각하 0.6%로 집계되었다.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합의율은 1.7%p, 기각·각하율은 1.4%p 각 상승하였고, 조정불성립결정은 1.8%p 감소하였다. 정정·반론 등의 보도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회복된 사례는 64.8%로, 2006년의 60.6%보다 4.2%p 상승하였다.

매체별로는 잡지에 대한 피해구제율이 80.0%로 가장 높고, 방송이 55.9%로 가장 낮았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동의율은 40.7%, 이의신청율은 59.3%이며, 이의신청은 대부분 피신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조정액 평균은 313만 원으로 권리 도입 이후 매년 3백만 원대 초중반 수준에서 비슷

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신청과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중재신청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고 중재신청한 건수는 14건이었다.

시정권고 202건, 자살관련 상세 묘사 시정권고 건수 대폭 감소

또한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710종의 매체를 심의하여 이 중 202건의 심의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중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200건이며 제3자가 신청하여 시정권고한 건수는 2건이다.

시정권고 건수가 2006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은 사건사고의 피의자·피고인의 신원공개 건수가 다소 증가한데다 마약의 용량·용법 공개 건수가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자살관련 상세 묘사에 대한 시정권고는 38.8%→21.8%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언론들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기사화하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4년 위원회 내에 설치된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2,343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언론사, 대학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해 총 7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제1장 조정신청 현황

1. 청구건수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1,043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년 연속 1,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44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정정·반론 청구 등과 같은 병합 청구건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청구건수

구 분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청 구 건 수	724	759	883	1,087	1,043
전년대비 증감		35	124	204	△44

2. 중재부별 청구건수

중재부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61.7%, 지역중재부가 38.3%로 나타나 서울중재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역중재부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1개 중재부에서 처리한 건수는 평균 107건, 지역 1개 중재부의 처리건수는 평균 40건이었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청구건수

연 도 \ 중재부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서 울	592	67.0	709	65.2	644	61.7
부 산	35	4.0	42	3.9	25	2.4
대 구	14	1.6	31	2.9	32	3.1
광 주	44	5.0	55	5.1	63	6.0
대 전	19	2.2	29	2.7	41	3.9
경 기	87	9.9	113	10.4	84	8.1
강 원	15	1.7	14	1.3	14	1.3
충 북	10	1.1	13	1.2	23	2.2
전 북	29	3.3	50	4.6	65	6.2
경 남	25	2.8	20	1.8	37	3.5
제 주	13	1.5	11	1.0	15	1.4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가 84건, 전북중재부가 65건, 광주중재부가 63건으로 3개 중재부가 지역중재부의 청구건수인 399건의 53.1%를 처리하였고, 강원중재부와 제주중재부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6년에 비해 경기중재부와 부산중재부의 청구건수가 각 29건, 17건 감소한 반면, 경남중재부, 전북중재부, 대전중재부의 청구건수는 각 17건, 15건, 12건 증가하였다.

3. 청구권별 청구건수

각 청구권별 청구건수를 보면, 정정보도청구 52.8%, 손해배상청구 33.5%, 반론보도청구 11.0%로 나타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가 전체 청구건수의 8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한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론보도청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건수

청구명	연도		2005		2006		2007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 정	531	60.1	546	50.2	551	52.8	1,628	54.0		
반 론	194	22.0	211	19.4	115	11.0	520	17.3		
추 후	17	1.9	12	1.1	28	2.7	57	1.9		
손 배*	141	16.0	318	29.3	349	33.5	808	26.8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3,013	100.0		

* 손해배상청구는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통계임

〈표 1-4〉 최근 3년간 병합청구사건 청구건수

청구명	연 도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정·손배	78	67.2	198	65.6	232	83.8		
정정·반론	9	7.8	57	18.9	19	6.9		
반론·손배	17	14.7	16	5.3	12	4.3		
추후·손배	8	6.9	10	3.3	5	1.8		
정정·반론·손배	4	3.4	20	6.6	9	3.2		
정정·추후·손배			1	0.3				
계	116	100.0	302	100.0	277	100.0		

* 병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부터 가능하였으므로 2005년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4.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신청인 유형은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신청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가기관의 신청비율이 전년 대비 4.2%p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표 1-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신청인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개 인	385	43.6	529	48.7	525	50.3
국가기관	146	16.5	151	13.9	101	9.7
지자체·공공단체	53	6.0	46	4.2	62	5.9
일반단체	152	17.2	172	15.8	145	13.9
종교단체	19	2.2	9	0.8	10	1.0
회 사	116	13.1	145	13.3	176	16.9
교육기관	12	1.4	35	3.2	24	2.3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5.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별로 보면 신문이 60.8%, 방송이 24.0%를 차지했는데 신문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방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청도 증가하여 10.8%를 차지했다. 뉴스통신은 2.9%, 잡지 1.0%였다.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MBC로 69건이다. 이어 KBS(67건), 조선일보(39건), 동아일보(33건), 문화일보(32건), 한겨레(31건), SBS(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16건으로 비교적 적었다.

지역 일간지 중 청구건수가 7건 이상인 매체를 보면, 경인매일 9건, 새전북신문 8건, 충청투데이·경기신문·경인일보·전북일보 각 7건이다. 경제지는 한국경제 20건, 매일경제 13건이며, 케이블 TV는 YTN 8건, 뉴스통신은 연합뉴스 23건, 뉴시스 7건 순이었으며, 인터넷신문은 오마이뉴스 15건, 노컷뉴스 11건, 에클레시아뉴스 9건, CNB NEWS 7건 순 이었다.

지역주간신문 중에서는 충청리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간행물로 분류되는 교회의 후보(3건)와 대학신문도(2건) 있었다.

〈표 1-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매체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신 문	609	69.0	752	69.2	634	60.8
방 송	174	19.7	216	19.9	250	24.0
잡 지	33	3.7	25	2.3	10	1.0
뉴스통신	18	2.0	17	1.6	30	2.9
인터넷신문	48	5.4	77	7.1	113	10.8
기 타	1	0.1		0.0	6	0.6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표 1-7〉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 청구건수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 터넷 신 문	기 타
	중 양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TV	케이블 TV	이동멀티 미디어				
1,043	278	226	130	225	24	1	10	30	113	6
100.0(%)	26.6	21.6	12.5	21.6	2.3	0.1	1.0	2.9	10.8	0.6

6. 주된 침해유형

조정대상 보도의 침해유형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나 주 침해사항을 중심으로 분류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초상·성명·음성권이나 프라이버시 등 기타 인격권 침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명예이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청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 최근 3년간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주된 침해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명예훼손	827	93.7	1,004	92.4	953	91.4
신용훼손	23	2.6	17	1.6	2	0.2
초 상 권	15	1.7	48	4.4	53	5.1
음 성 권	2	0.2	7	0.6	12	1.1
성 명 권	14	1.6	1	0.1	3	0.3
프라이버시			4	0.4	11	1.0
기 타	2	0.2	6	0.6	9	0.9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침해의 경우, 대부분 동의없이 촬영, 무단공표되는 경우가 77.3%, 동의는 받아 촬영 되었으나 그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된 경우가 20.4%를 차지했다. 아예 보도내용과 관계없는 자료화면으로 이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2.3%)도 있었다.

〈표 1-9〉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청 구 건 수	비 율(%)
동의없이 무단공표	68	77.3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18	20.4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	2.3
계	88	100.0

8. 조정대상기사 분야

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사는 사건·사고·고발 기사가 61.8%를 차지했고, 이어 정치·선거 관련 기사 8.9%, 경제·산업 관련 기사 6.5%, 교육 3.4%, 노동관련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0〉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 수	비 율(%)
정치·선거	93	8.9
국방·외교	19	1.8
경제·산업	68	6.5
사회(사건/사고/고발)	645	61.8
보건·복지	24	2.3
스포츠·연예	13	1.2
레저·생활	25	2.4
환 경	17	1.6
종 교	26	2.5
노 조	31	3.0
교 육	35	3.4
미 디 어	16	1.5
기 타	31	3.0
계	1,043	100.0

9. 조정대상 기사의 유형

방송매체 이외의 신문·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75.2%, 탐사·심층·기획 보도기사 8.8%, 논단 및 칼럼 기사 3.3% 순이었다.

논단·칼럼, 비평, 만평, 가십 등의 의견성 기사도 많지는 않지만 조정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의 경우, 뉴스가 62.4%, 시사고발 22.0%, 교양정보 9.6% 순이었다.

〈표 1-11〉 조정대상 기사(방송 외) 유형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유형별	건 수	비 율(%)
스트레이트	596	75.2
사 설	16	2.0
논단 및 칼럼	26	3.3
인 터 뷰	10	1.3
외부필자 기고	11	1.4
비 평	21	2.6
탐사·심층·기획보도	70	8.8
만화·만평	4	0.5
사 진	17	2.1
통 계·표	1	0.1
가 십	7	0.9
기 타	14	1.8
계	793	100.0

〈표 1-12〉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

방송 장르별	건 수	비 율(%)
뉴 스	156	62.4
시 사 고 발	55	22.0
토 론	3	1.2
교 양 정 보	24	9.6
연예 · 스포츠	2	0.8
다큐멘터리	7	2.8
기 타	3	1.2
계	250	100.0

10. 접수유형

조정신청사건의 접수유형을 보면, 방문 43.5%, 인터넷 29.8%, 우편 24.1%, 구술 2.6% 순이었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인터넷에 의한 신청이 전년보다 6.9%p 상승하여 3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 점이 눈에 띄고, 구술 신청도 증가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비율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3〉 최근 3년간 접수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접수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방 문	295	62.0	580	53.4	454	43.5
우 편	74	15.5	245	22.5	251	24.1
인 터 넷	74	15.5	249	22.9	311	29.8
구 술	33	6.9	13	1.2	27	2.6
계	476	100.0	1,087	100.0	1,043	100.0

* 인터넷 및 구술에 의한 신청은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짐

제2장 처리결과 현황

1. 처리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합의 34.4%, 직권조정결정 5.2%, 조정불성립결정 18.6%, 취하 37.2%, 기각 4.0%, 각하 0.6%로 집계되었다. 2006년에 이어 취하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년 대비 합의율은 1.7%p, 기각·각하율은 1.4%p 각 상승하였고 직권조정결정 비율은 비슷하며, 조정불성립결정은 2.2%p 감소하였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구분 연도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100.0	37.8	3.5	2.3	20.5	2.2	1.7	32.0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100.0	32.7	2.7	2.6	20.8	2.0	1.2	38.0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의 의미는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하여 합의된 경우, 직권조정결정된 사건 중 양당사자 이의없이 동의된 경우, 취하,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조정결정 사건 중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피해구제율은 이 피해구제건수를 기각·각하 건수를 제외한 조정건수로 나눈 것이다. 지난 해 피해구제율은 64.8%이고 이는 2006년도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이다.

〈표 2-2〉 피해구제율

청구건수 [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1,043	48	995	645	64.8

3. 청구권별 처리결과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추후보도청구에 대한 비율이 80.8%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반론보도청구로 71.8%로 나타났다. 범죄협회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으나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어 청구하는 추후보도청구나, 복잡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수 요건이 아닌 반론보도에 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각 63.7%, 63.1%를 기록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해구제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합의율은 반론보도청구가 가장 높고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낮았으나, 조정결정률과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높았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취하된 건 중 보도율(82.4%)이 가장 높았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의	이의	계속								
2005	정 정	531	225	18	10	(4)		108		9	7	154	(80)	63.5
	반 론	194	84	9	7			32	(1)	7	1	54	(30)	66.7
	추 후	17	9									8	(2)	64.7
	손 배	141	16	4	3			41		3	7	67	(48)	51.9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정 정	546	220	13	10			108	(1)	14	12	169	(90)	62.3
	반 론	211	79	6	8			37	(1)	2		79	(42)	61.2
	추 후	12	8					1				3	(3)	91.7
	손 배	318	49	10	10			80		6	1	162	(115)	55.9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정정	551	223	12	17	(1)		103	(5)	22	3	171	(94)	63.7
	100.0%		40.5	2.2	3.1			18.7		4.0	0.5	31.0		
	반론	115	52	2	1			22		4	1	33	(25)	71.8
	100.0%		45.2	1.7	0.9			19.1		3.5	0.9	28.7		
	추후	28	7					2		2		17	(14)	80.8
	100.0%		25.0					7.1		7.1		60.8		
	손배	349	77	8	14	(1)		67		14	2	167	(124)	63.1
100.0%		22.1	2.3	4.0			19.2		4.0	0.6	47.8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피해구제율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국가기관으로 74.5%를 보였고, 이어 교육기관 69.6%, 일반단체 67.4%, 개인 63.8%, 회사 61.6%, 지자체·공공단체 53.2% 순이었다.

종교단체의 경우 2006년 피해구제율이 11.1%를 기록한 반면 2007년의 피해구제율이 매우 높게 향상된 것이 주목된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개 인	385	127	13	9	(3)	92	(1)	13	10	121	(61)	56.6	
	단 체	국가기관	146	69	10	3		14		1	1	48	(34)	78.5
		지자체·공공단체	53	24	1	3	(1)	10				15	(10)	67.9
		일반단체	152	65	1	1		35		2	4	44	(26)	63.0
		종교단체	19	7	1			3				8	(7)	78.9
		회사	116	37	5	4		26		3		41	(21)	55.8
		교육기관	12	5				1				6	(1)	50.0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개 인	529	163	20	15		93		16	2	220	(128)	60.9	
	단 체	국가기관	151	66	3	7		30		1		44	(35)	69.3
		지자체·공공단체	46	17	4	1		10		1		13	(8)	64.4
		일반단체	172	55	2	5		34		3	11	62	(36)	58.9
		종교단체	9	1				8						11.1
		회사	145	35				49	(2)	1		60	(34)	49.3
		교육기관	35	19				2				14	(9)	80.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개 인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단 체	국가기관	101	44	1	2		15	(1)	3		36	(27)	74.5
		지자체·공공단체	62	21		1		20				20	(12)	53.2
		일반단체	145	48	3	1		31		7	3	52	(40)	67.4
		종교단체	10	6								4	(4)	100.0
		회사	176	65	3	7		38	(1)	4		59	(37)	61.6
		교육기관	24	10		2				1		11	(6)	69.6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법조인·연예인·공공기관장이 100%를 보였으나 청구건수가 매우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의료인이나 정당정치인의 피해구제율은 각 30.8%, 40.0%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 분 직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국회의원	28	9				11	(1)			8	(4)	50.0
법조인	5	3								2	(2)	100.0
공무원	31	11				5		2		13	(10)	72.4
군인/경찰	13	6				4				3	(2)	61.5
기초광역단체장/의원	28	3		2	(1)	9	(1)			14	(9)	50.0
정당·정치인	5					1				4	(2)	40.0
의료인	14	2		4				1		7	(2)	30.8
문화예술인	19	9	1			5				4	(1)	57.9
종교인	18	11				2	(1)	3		2	(1)	86.7
회사원	80	25	2	1		14			1	37	(15)	53.2
언론인	13	4		1		4				4	(3)	53.8
교육자	59	13	4	1		4				37	(29)	78.0
개인사업가	73	26	5	7		12		3		20	(13)	62.9
금융업종사자	2	1				1						50.0
연예인	3									3	(3)	100.0
학 생	14	4		1	(1)	2		4		3		50.0
시민활동가	11	3		2		2		3		1	(1)	50.0
공공기관장	3									3	(3)	100.0
조합대표협회장	14	7	2							5	(4)	92.9
기타	92	28	1			14		11	2	36	(27)	70.9
계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	100.0	30.8	2.9	3.6		17.1		5.1	0.6	39.2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잡지에 대한 청구건수는 적으나 피해구제율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문 68.0%, 뉴스통신 65.5%, 인터넷신문 65.0%, 방송 55.9% 순이었다. 인쇄매체에 비해 방송의 피해구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신 문	609	239	17	8	(2)	113		11	6	215	(123)	64.4
	방 송	174	58	12	8	(2)	38	(1)	7	1	50	(22)	57.2
	잡 지	33	15	2	2		11				3	(3)	60.6
	뉴스통신	18	6				6		1	2	3	(2)	53.3
	인터넷신문	48	15		2		13			6	12	(10)	59.5
	기 타	1	1										100.0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신 문	752	242	20	16		144		13	7	310	(193)	62.2
	방 송	216	57	8	9		66	(2)	2	5	69	(30)	46.4
	잡 지	25	17	1	1		2				4	(2)	80.0
	뉴스통신	17	6				1		2	1	7	(7)	92.9
	인터넷신문	77	34		2		13		5		23	(18)	72.2
	기 타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신 문	634	226	12	15	(1)	112	(3)	25		244	(172)	68.0
	방 송	250	71	7	17	(1)	52	(1)	11	1	91	(53)	55.9
	잡 지	10	4	2			2				2	(2)	80.0
	뉴스통신	30	10	1			6	(1)	1		12	(7)	65.5
	인터넷신문	113	44				22		5	5	37	(23)	65.0
	기 타	6	4								2		66.7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은 초상권침해가 81.1%로 높게 나타났고, 명예훼손이 64.5%, 프라이버시(사생활)침해가 60.0%를 기록했다. 음성권과 성명권 침해는 각 41.7%, 33.3%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							
2005	명예훼손	827	322	30	20	(4)	174	(1)	15	13	253	(148)	63.2
	신용훼손	23	5				4		1	2	11	(5)	50.0
	초상권	15	3	1			1		3		7	(5)	75.0
	음성권	2	1				1						50.0
	성명권	14	2								12	(2)	28.6
	프라이버시												
	기타	2	1				1						50.0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명예훼손	1,004	318	20	25		213		20	13	395	(238)	59.3
	신용훼손	17	5	2			5	(2)			5	(4)	76.5
	초상권	48	27	6	3		5				7	(3)	75.0
	음성권	7	4	1							2	(1)	85.7
	성명권	1					1						0.0
	프라이버시	4	1				1				2	(2)	75.0
	기타	6	1				1		2		2	(2)	75.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명예훼손	953	331	18	29	(1)	185	(5)	38	4	348	(233)	64.5
	신용훼손	2					2						0.0
	초상권	53	21	3	2	(1)	2				25	(18)	81.1
	음성권	12	1	1	1		3				6	(3)	41.7
	성명권	3									3	(1)	33.3
	프라이버시	11	4				1		1	1	5	(2)	60.0
	기타	9	2				1		4	1	1		50.0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별 처리결과

〈표 2-8〉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 유형	구분		침해유형						처리결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정정	조정정정	불성정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9	9							2		2				5
	국민일보	7	7									1				6
	내일신문	10	10							1		3				6
	동아일보	33	32						1	9	3	6	2			13
	문화일보	32	31		1					6	2	13	3			8
	서울신문	17	17							7		2	3			5
	세계일보	4	4							1						3
	조선일보	39	36		2				1	16	1	9	3			10
	중앙일보	16	13					2	1	4				2		10
	한겨레	31	29		2					14	4	6				7
	한국일보	8	8							6						2
소계	206	196		5			2	3	66	10	42	13			75	
지방 일간지	서울	시민일보	2	2						1						1
		내외신문	2	2						1						1
		서울일보	3	3						1	2					
	부산	국제신문	1	1						1						
		부산일보	3	3								1				2
	대구·경북	경북일보	2	2						2						
		매일신문	6	6						4			2			
		영남일보	4	4								2				2
		경북문화신문	4	4						2						2
		대구시민일보	2	2												2
	광주·전남	경상매일신문	2	2								2				
		광주매일	3	3						2						1
		광주일보	1	1						1						
		대한일보	5	5						2						3
		목포일보	2	2						1						1
		무등일보	1	1												1
		전광일보	2	2						2						
		전남일보	3	3						1						2
		호남매일	1	1						1						
		호남일보	5	5						1	1	3				
광남일보	2	2						1						1		
대전·충남	전남도민일보	4	4						1	2					1	
	남도일보	3	3						1						2	
	순천신문	1	1						1							
	대전일보	3	3						2						1	
	충도일보	5	5						4						1	
	충청신문	1	1						1							
	충청신문	1	1						1							

매체 유형	구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 결	권 정 정	조 정 성립 결	기 각	각 하	취 하		
지 방 일 간 지	대전·충남	중앙매일	2	2												2		
		대전투데이	2	2						1							1	
		충청투데이	7	7						3			2				2	
	인	경기도민일보	4	4						2							2	
		경기매일	2	2									2					
		경기신문	7	7						1				2			4	
		경기일보	3	3													3	
		경인매일	9	9									6				3	
		경인일보	7	7						2				2			3	
		천·경	시대일보	4	4						1			2				1
			우리일보	2	2						1							1
			인천일보	3	3						2			1				
		기	중부일보	5	5									5				
	전국매일		4	4						2							2	
	평화일보		4	4						1			1				2	
	수도일보		4	4						1			2				1	
	인천신문		2	2													2	
	일	일간경기	2	2						1							1	
		강원	강원도민일보	2	2								2					
		충북	동양일보	2	2						2							
			중부매일	4	4						2							2
			한빛일보	1	1													1
	새충청일보	2	2													2		
	전	새전북신문	8	8						1			2				5	
		전라일보	4	4						1							3	
		전북도민일보	4	4						1							3	
		전북일보	7	7						3							4	
		전북중앙신문	3	3													3	
		전북매일	4	4						1							3	
		북	새전북신문	3	3						2							1
			전북대중일보	4	4									2				2
			전북연합신문	6	6						2							4
			전주일보	5	5						2							3
경남	경남도민일보	6	6						3							3		
	경남매일	3	3						2							1		
	경남신문	1	1						1									
	경남일보	4	4						1			2				1		
	울산매일	2	2						1							1		
	울산신문	1	1													1		
제주	제민일보	1	1													1		
	제주일보	1	1													1		

매체 유형	구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정결	조정립결	기각	각하	취하
	제주 한라일보	3	3								2				1
	소 계	227	227							77	5	39	6		100
경제지	매일경제	13	12		1					8					5
	서울경제	4	4							1	1				2
	파이낸셜뉴스	6	6							2					4
	한국경제	20	19						1	10		1	1		8
	헤럴드경제	5	4		1					3					2
	머니투데이	3	3							1		2			
	소 계	51	48		2				1	25	1	3	1		21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1	1										1		
	일간스포츠	1						1		1					
	소 계	2	1					1		1			1		
특수일간지	국방일보	1	1									1			
	디지털타임스	3	2					1		2					1
	매일노동뉴스	4	4							3					1
	환경일보	2	2							2					
	전자신문	4	4										1		3
	소 계	14	13					1		7		1	1		5
외국어일간지	Korea Herald	2	2							1					1
	소 계	2	2							1					1
무료일간지	메트로	1			1					1					
	AM7	2			2					1					1
	소 계	3			3					2					1
중앙방송	KBS-TV	6	4			2						1	2		3
	KBS-1TV	42	36		5	1				9	4	10			19
	KBS-2TV	19	16		1			1	1	3	1	4	2		9
	MBC-TV	69	57		4	6				20	18	16	2		13
	SBS-TV	25	17		6					8		5	4	1	7
	소 계	161	130		16	9			5	1	40	23	36	10	1
지방방송	부산KBS-1TV	4	4							1					3
	대구KBS-1TV	1	1												1
	창원KBS-1TV	2	2									2			
	전주KBS-1TV	1			1					1					
	광주KBS-1TV	2	2												2
	순천KBS-1TV	2	2									1			1
	제주KBS-1TV	2	2							1					1
	강릉MBC-TV	1			1										1
	삼척MBC-TV	1	1							1					
	원주MBC-TV	3	3							3					
	춘천MBC-TV	1	1												1
	청주MBC-TV	2			2										2

매체 유형	구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조결	권정정	조정성립결	기각	각하	취하
지방방송	대전MBC-TV	1	1													1
	대구MBC-TV	5	3		2					2		2				1
	안동MBC-TV	1	1							1						
	포항MBC-TV	2	2							1		1				
	마산MBC-TV	4	4									3	1			
	전주MBC-TV	4	3		1					1		1				2
	광주MBC-TV	1	1							1						
	여수MBC-TV	2	2													2
	제주MBC-TV	2	2							1						1
	광주PBC-R	1	1													1
	소 계	45	38		5	2				14		10	1			20
	지역민방	GTB-TV	2	2							2					
KNN-TV		4	4							3						1
TJB-TV		2	2							1						1
TBC-TV		1			1											1
CJB-TV		2	2							1						1
KBC-TV		1	1													1
J-TV		4	3		1					1						3
UBC-TV		1	1								1					
JIBS-TV		2	2													2
소 계		19	17		2					8	1					10
케이블TV	YTN	8	7				1			4		2				2
	MBN	2	2									2				
	한국경제외우TV	2	1		1					2						
	YTN STAR	1	1													1
	t v N	5	3		2					1						4
	Mnet	1						1								1
	서경방송	2	2									2				
	비즈니스엔	1			1											1
	평화방송TV	1	1							1						
	Story On	1	1													1
소 계	24	18		3	1	1	1		8		6				10	
이동멀티미디어	TU미디어	1			1					1						
	소 계	1			1					1						
뉴스통신	연합뉴스	23	18		4				1	7		4	1			11
	뉴스스	7	5		2					3	1	2				1
	소 계	30	23		6				1	10	1	6	1			12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3	1						2	3						
	주간동아	5	5								1	3				1
	주간조선	2	2								2					
	이코노미21	1	1													1

매체 유형	구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결	권 정결	조 불성결	정 립정	기 각	각 하
시사주간지	시사한국	1	1										1			
	시사IN	5	5							1		2				2
	소 계	17	15						2	4	3	5	1			4
시사주간신문	일요시사	2	2							2						
	일요신문	1	1													1
	소 계	3	3							2						1
지역주간신문	CNB저널	2	2							2						
	동작신문	2	2								2					
	마포신문	2	2							1						1
	울산여성신문	1	1													1
	경북문화신문	2	2							1						1
	담양주간신문	1	1									1				
	나주뉴스	2	2							1	1					
	순천시민의신문	2	2									2				
	큰여수신문	2	2													2
	남해안신문	1	1													1
	여수신문	1	1													1
	나주신문	1	1							1						
	신안신문	1	1													1
	장성군민신문	2	2													2
	고흥타임즈	1	1							1						
	서해안신문	2	2							1		1				
	아산투데이	2	2									2				
	보령시민신문	4	4							1						3
	금산저널	2	2									2				
	충남시사신문	1	1													1
	안산타임스	2	2							1						1
	부천자치신문	3	3								1	2				
	부평신문	1	1							1						
	평택시민신문	1	1							1						
	동부고차로저널	1	1									1				
	광명지역신문	1	1													1
	뉴스앤뉴스	2	2													2
	원주투데이	2	2							2						
	인제신문	2	2													2
	충청리뷰	7	4			3				4		1				2
나우리신문	1	1							1							
연기신문	2	2							1						1	
목포투데이	1	1							1							
완주신문	2	2							1						1	
함안아라신문	3	3							2						1	

매체 유형	구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조결	권정정	조불성결	조정립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주간신문	양산시민신문	1					1										1
	고성신문	2	2							1							1
	김해신문	3	3							2							1
	미륵산	2	2									2					
	양산신문	2	2							1							1
	소 계	75	71			3		1		28	4	14					
특수주간신문	수산신문	1	1									1					
	교통신문	3	3								2						1
	개인택시신문	2	2							1							1
	컴퓨터타임즈	2			2												2
	기독교신문	2	2							2							
	PD저널	1	1									1					
	e조은뉴스	4	4							2				2			
	여행미디어	2	2									2					
	한국교육신문	1	1							1							
	미디어오늘	2	2														2
	가스산업신문	2	2								2						
	건설교통신문	1	1							1							
	목재신문	3	3							1		2					
	목회자신문	1	1							1							
	한국광고신문	1	1							1							
	한국안경신문	2	2							2							
	전문건설신문	1	1							1							
	한국시사정보신문	1	1														1
	전국아파트신문	2	2									2					
소 계	34	32			2				13	4	8	2					7
월간지	신동아	3	3							1	2						
	월간조선	3	3							1							2
	KTX매거진	2	2									2					
	BESTBABY	1			1					1							
	군사세계	1	1							1							
	소 계	10	9			1				4	2	2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11	11							5		2					4
	오마이뉴스	15	15							8		5					2
	프레시안	1	1									1					
	쿠키뉴스	1	1														1
	e조은뉴스	2	2									2					
	CNB NEWS	7	7							5		2					
	투데이코리아	1	1							1							
	대자보	1			1					1							
데일리안	3	2		1													3

매체 유형	구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결정	조정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데일리팝	1	1							1						
	브레이크뉴스	3	3							1					2	
	이데일리	4	4							2		2				
	데일리서프라이즈	3	3							2					1	
	메디컬투데이	2	2							2						
	오토데일리	2	2												2	
	무토미디어	1	1												1	
	코카뉴스	2	2							1					1	
	위드뉴스	1			1					1						
	아이뉴스24	2	2												2	
	메디게이트뉴스	1	1												1	
	인터넷미디어오늘	2	2									1			1	
	인터넷환경일보	3	3							2		1				
	무브온21	1							1					1		
	애플레시안뉴스	9	9							4			5			
	이투데이	2		2								2				
	소통뉴스	6	6							2					4	
	양산뉴스	1						1							1	
	제주투데이	4	4							2					2	
	광주투데이	2	2							1					1	
	광양만권뉴스	1	1												1	
	광주전남데일리안뉴스	3	3							1		2				
	엔에스아이뉴스	2	2												2	
	울산e조은뉴스	2	2												2	
	진도뉴스	2	2									2				
	퍼스트데일리	1	1												1	
	조선닷컴	3	2						1					3		
	플라마	2	2												2	
	청주기별	1			1					1						
	JBS	1	1							1						
	화곡동교회홈페이지	1	1											1		
	소 계	113	104	2	4			1	1	1	44		22	5	5	37
	기타	관악	1	1							1					
개봉교회주보		1	1												1	
한성대신문		2	2							2						
성도교회주보		1	1												1	
신광교회주보		1	1							1						
소 계	6	6							4						2	
총 계	1,043	953	2	53	12	3	11	9	359	54	194	42	6	388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충북중재부가 7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북중재부 76.9%, 부산중재부 73.9% 순이었다. 2006년과 달리 중재부별로 비교적 고른 피해구제율을 보였는데 2006년에는 중재부별로 큰 차이를 보였었다.

〈표 2-9〉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가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							
2005	서 울	592	224	27	18	(4)	130	(1)	17	9	167	(96)	62.2
	부 산	35	8	1			7		1		18	(10)	55.9
	대 구	14	4				2				8	(4)	57.1
	광 주	44	17				8			1	18	(7)	55.8
	대 전	19	8				5				6	(4)	63.2
	경 기	87	27	1			24			1	34	(16)	51.2
	강 원	15	7								8	(7)	93.3
	충 북	10	4								6	(3)	70.0
	전 북	29	15	2	2		4				6	(2)	65.5
	경 남	25	15							4	6	(5)	95.2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100.0%	37.8	3.5	2.3		20.5		2.2	1.7	32.0			
2006	서 울	709	236	23	26		157	(2)	16	13	238	(157)	61.5
	부 산	42	15				10				17	(6)	50.0
	대 구	31	10				10				11	(4)	45.2
	광 주	55	6				16		1		32	(10)	29.6
	대 전	29	15				2				12	(10)	86.2
	경 기	113	25	4			17		3		64	(38)	60.9
	강 원	14	4	1					2		7	(5)	83.3
	충 북	13	7								6	(3)	76.9
	전 북	50	21	1	2		8				18	(11)	66.0
	경 남	20	14								6	(5)	95.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100.0%	32.8	2.7	2.6		20.8		2.0	1.2	38.0			
2007	서 울	644	224	20	28	(2)	121	(3)	33	6	212	(140)	64.3
	부 산	25	10	1			1	(1)	2		11	(5)	73.9
	대 구	32	13				7	(1)	2		10	(5)	63.3
	광 주	63	21		4		11				27	(19)	63.5
	대 전	41	16				9				16	(11)	65.9
	경 기	84	20	1			24		4		35	(23)	55.0
	강 원	14	8				2				4	(1)	64.3
	충 북	23	11				1				11	(7)	78.3
	전 북	65	19				5				41	(31)	76.9
	경 남	37	13				11		1		12	(9)	61.1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 ()안의 숫자는 합의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0. 손해배상 청구액 조정액 현황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고 1천억 원에서 최저 1원까지 다양하였다. 평균액은 약 4억 원, 중간액은 2천만 원이다. 1천억 원을 청구한 신청인이 한 명 있어 평균액이 2006년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이를 제외하면 평균 1억 1천만 원 정도로 2006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조정액 평균은 약 313만 원이다. 최고액은 1천만 원, 최저액은 49만 원, 중간액은 2백만 원이다.

〈표 2-10〉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구 분 연 도	청구 건수	청 구 액				조 정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5	141	500,000	4,150,000,000	278,180,778	50,000,000	1,000,000	10,000,000	3,452,381	3,500,000
2006	318	10,000	3,000,000,000	109,545,629	25,000,000	300,000	15,000,000	3,229,750	1,500,000
2007	349	1	100,000,000,000	400,663,571	20,000,000	490,000	10,000,000	3,133,462	2,000,000

11.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액은 대부분 1백만 원~5백만 원 사이에서 조정되고 있다. 조정액 분포는 1백만 원~2백만 원이 36.5%, 2백만 원~5백만 원이 28.8%로 전체 65.3%를 차지했으며, 5백만 원~1천만 원 17.3%, 1천만 원 이상 9.6%, 1백만 원 미만 7.7%로 집계되었다.

2006년도에 비해 5백만 원~1천만 원의 분포 비율이 많이 상승하였고 1천만 원 이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구 분 연 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2005		4	13	3	1	21
		19.0	61.9	14.3	4.8	100.0%
2006	7	15	11	1	6	40
	17.5	37.5	27.5	2.5	15.0	100.0%
2007	4	19	15	9	5	52
	7.7	36.5	28.8	17.3	9.6	100.0%
계	11	38	39	13	12	113
	9.7	33.5	34.4	11.6	10.8	100.0%

12. 손해배상 병합청구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병합된 청구의 처리결과를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 손해배상과 함께 병합된 청구의 합의율이 단독 청구의 합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배상청구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금전배상이 아닌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2〉 손해배상 병합 청구사건 처리결과

구 분 병합청구명	청구명	건 수	합의건수	합의율 (%)	단독청구 합의율 (%)	취하건수	취하건수 중 보도된 건수	취하건수 중 보도율 (%)	피해 구제율 (%)
정정·손배 (231건)	정 정	231	103	44.6	37.0	59	36	61.0	65.2
	손 배	231	41	17.7	33.7	115	91	79.1	58.9
반론·손배 (12건)	반 론	12	5	41.7	40.0	2	2	100.0	58.3
	손 배	12	2	16.7	33.7	5	5	100.0	58.3
추후·손배 (5건)	추 후	5	3	60.0	17.4	2	1	50.0	80.0
	손 배	5	1	20.0	33.7	4	3	75.0	80.0
정정·반론·손배 (9건)	정 정	9	3	33.3	37.0	4	4	100.0	100.0
	반 론	9	5	55.6	40.4	3	3	100.0	100.0
	손 배	9	2	22.2	33.7	6	6	100.0	100.0

제3장 중재신청 처리결과 현황

1. 침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조정사건과 별도로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중재신청한 건수는 14건이었다. 이를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상권 12건, 프라이버시 2건으로 명예 이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것이 전부였는데 이 사건들은 그 위법성을 가리기가 쉽고 피신청인 측도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재신청건 모두 처음부터 중재로 신청된 경우는 없고,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여 분쟁해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한해 중재부가 권유하여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중재로 변경 신청한 것이었다.

〈표 3-1〉 침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연도 \ 구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6	7	3		3	1			
2007	14			12			2	
계	21	3		15	1		2	
100.0%		14.3		71.4	4.8		9.5	

2. 중재신청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중재 청구액 평균은 약 740만 원으로 조정 청구액 평균 3억 9천 7백만 원의 1.9% 수준이다. 중재액 평균은 175만 원으로 조정액 평균 313만 원의 50%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조정 청구액보다 중재청구액이 낮은 것은 중재건이 대부분 소액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 중재신청사건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연도 \ 구분	청구건수	청 구 액				중 재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6	5	10,000,000	30,000,000	22,000,000	20,000,000	700,000	7,500,000	4,240,000	5,000,000
2007	12	1,000,000	30,000,000	7,383,333	5,000,000	300,000	3,000,000	1,750,000	1,350,000

제4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21건(청구건수 32건)이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건수가 17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한 건수는 3건,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건수는 1건 이었다.

〈표 4-1〉 연도별 자동소제기 처리결과

연도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하	계속
2005	9	2	4	1	2		2	7		2	5	2	
2006	24	6	6	8	2	2	4	20		14	4	5	1
2007	21	6		4	10	1	1	17	3	2	4		15
계	54	14	10	13	14	3	7	44	3	18	13	7	16

〈표 4-2〉 매체별 자동소제기 처리결과

매체명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하	계속
동아일보	1				1		1						1
문화일보	2	2						1	1				2
서울일보	1				1			1					1
전남도민일보	1				1			1		1			
호남일보	1			1				1					1
서울경제	1	1						1					1
주간조선	1				1				1				1
나주뉴스	1	1						1					1
가스산업신문	1				1			1			1		
KBS-TV	2	1				1		2					2
MBC-TV	9	1		3	5			8	1	1	2		6
계	21	6		4	10	1	1	17	3	2	3		16

연도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 조 정

1981. 3. 31 ~ 2007. 12. 31.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계	11,364	3,710	214	212	(27)	2,268	(269)	284	72	4,604	(2,405)	60.2%
	100.0%	32.6%	1.9%		1.9%		20.0%	2.5%	0.6%		40.5%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합의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게재된 건수)/ 조정건수

■ 중 재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중재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7		7				
2007	14		14				
계	21 (100.0%)		21 (100.0%)				

◇ 시정권고현황 ◇

2007년에는 일간 104종(중앙일간지 27종, 지방일간지 77종), 종합주간 19종, 지역주간 240종, 월간 7종, 뉴스통신 2종, 인터넷신문 338 종 등 총 710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202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2006년의 190건에 비해 6.3%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총 200건이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제3자가 신청한 39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가 80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살관련 상세묘사가 44건(21.8%), 마약용량 · 용법공개가 30건(14.9%), 목격자 · 신고자 · 피해자 신원공개가 21건(10.4%), 사생활침해 14건(6.9%) 순이었다.

〈표 5-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07. 12. 31.

연도	구분 권고 건수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범의 침해					사회적 범의 침해				국가적 범의 침해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계	5,188	713	133	1,778	1,025	259	977	228	75			4,812	78	15	220	62	1
	100.0%	13.7%	2.6%	34.3%	19.8%	5.0%	18.8%	4.4%	1.4%			92.8%	1.5%	0.3%	4.2%	1.2%	0.0%

2006년에 비해 자살관련 상세묘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이 대폭 감소한 반면(38.8%→21.8%),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31.7%→39.6%), 마약용량·용법공개(5.3%→14.9%)는 대폭 상승했다.

특히 자살관련 상세묘사의 시정권고 비율이 2006년 38.8%에서 2007년 21.8%로 감소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에 대해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시정권고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시정권고 건수는 2005년 11건, 2006년 4건에 이어 2007년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127건(62.9%)을 차지하였으며, 인터넷신문 43건(21.3%), 뉴스통신 20건(9.9%), 주간지 및 주간신문 11건(5.4%) 등의 순이었다. 일간신문의 비율은 2005년 89.0%, 2006년 79.8%에서 2007년 62.9%로 대폭 감소한 반면,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7%, 2006년 8.6%에서 2007년에는 21.3%로 월등히 높아졌다.

〈표 5-2〉 2007년도 자체심의 의결현황

구분	간 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자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일간신문	중앙	21			13	1	4	1		2	
	지역	105		1	40	11	4	21	28		
주간신문	종합	6			1		3	1		1	
	지역	5					1		3	1	
잡지											
뉴스통신		20		1	9	3	1	3	3		
인터넷신문		43	1		17	6	1	4	10	4	
총계		200	1	2	80	21	14	30	44	8	
		100.0%	0.5%	1.0%	40.0%	10.5%	7.0%	15.0%	22.0%	4.0%	

〈표 5-3〉 2007년도 신청심의 의결현황

구분	간 별	계	신청 유형				처리 결과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기타	시정권고	기각	각하	취하	기타
일간신문	중앙	20	18	2				16		4	
	지역	1		1						1	
	특수	1		1			1				
주간신문	종합	1	1							1	
	지역										
방송		10	3	7				1		2	7(이첩)
잡지		1		1			1				
뉴스통신		5	5					1		4	
인터넷신문											
총계		39	27	12			2	18		12	7
		100.0%	69.2%	30.8%			5.1%	46.2%		30.8%	17.9%

제3자가 신청한 심의건수는 모두 39건으로 이중 2건만이 시정권고 되었으며, 기각 18건, 취하 12건, 기타 7건 이었다. 2005년의 17건에 비해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정권고로 이어진 건수는 감소했다(3건→2건).

2006년에 비해 기각률은 높아진 반면(22.8%→46.2%), 취하율은 대폭 감소하였는데(72.0%→30.8%) 이는 시정권고 신청을 통해 사과문 게재, 기사삭제 등을 요구하거나 사전방송금지를 요청하는 등 여전히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1. 상담처리결과 현황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2,343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2006년도의 2,304건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이다.

상담신청유형은 전화상담이 1,916건(81.8%)로 가장 많았고, 방문상담이 190건(8.1%), 인터넷실시간상담 113건(4.8%), 인터넷게시판상담 91건(3.9%)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비해 전화상담 비율이 소폭 상승했고(79.7%→81.8%), 방문상담 비율 역시 소폭 상승했으며(7.7%→8.1%),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소폭 감소했다. (실시간상담 5.7%→4.8%, 게시판상담 6.1%→3.9%)

상담결과 1,776건(68.0%)에 대해 조정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이 가운데 696건이 실제 조정신청접수가 되었다. 조정신청접수율은 39.2%로 2006년도의 555건(32.3%)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어 소송제기 등의 법적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291건(11.1%), 타기관 안내 221건(8.5%), 기타 218건(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 상담신청유형

※ ()은 %

연도	구분 계	상 담 유 형					
		전 화	방 문	인터넷실시간	인터넷게시판	이메일상담	기 타
2004(4. 1.~12. 31.)	1,816	1,346	176	177	77	15	25
2005	2,353	1,815	267	147	94	16	14
2006	2,304	1,836	178	132	140	7	11
2007	2,343	1,916	190	113	91	14	19
계	8,816	6,913	811	569	402	52	69
	(100.0)	(78.4)	(9.2)	(6.4)	(4.6)	(0.6)	(0.8)

〈표 6-2〉 상담처리결과

※ ()은 %

연도	구분 계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절차안내	법적절차안내	제상담예정	타기관안내	자체종결	기 타	총 계	조정신청접수
2004(4. 1.~12. 31.)	1,816	1,151	533	91	183	103	11	2,072	318
2005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446
2006	2,304	1,719	286	59	297	36	145	2,542	555
2007	2,343	1,776	291	81	221	23	218	2,610	696
계	8,816	6,309	1,664	294	947	204	438	9,856	2,015
		(64.0)	(16.9)	(3.0)	(9.6)	(2.1)	(4.4)	(100.0)	(31.9)

* 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 결과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조정신청 접수율은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조정신청사건 접수비율을 의미.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불가능한 시연에 대한 상담을 의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1,459건(61.0%)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성명권·음성권 침해가 247건(10.3%), 사생활침해 63건(2.6%), 신용훼손 43건(1.8%)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비해 명예훼손과(58.0%→61.0%) 초상권·성명권·음성권 침해(9.4%→10.3%)로 다소 증가한 반면 신용훼손은 다소 감소하였다.(4.9%→1.8%)

〈표 6-3〉 피해유형별 상담건수

* ()은 %

연도	구분 계	피해유형					총계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성명권·음성권침해	사생활침해	기타	
2004(4.1~12.31.)	1,816	1,034	153	137	15	527	1,866
2005	2,353	1,710	51	172	42	435	2,410
2006	2,304	1,384	118	224	65	594	2,385
2007	2,343	1,459	43	247	63	582	2,394
계	8,816	5,587 (61.7)	365 (4.0)	780 (8.6)	185 (2.0)	2,138 (23.6)	9,055 (100.0)

〈표 6-4〉 월별 상담신청현황

* ()은 %

월	구분 건수	상담유형					
		전화	방문	인터넷실시간	인터넷게시판	이메일	기타
1월	208	169	31	2	5	0	1
2월	186	148	10	8	13	3	4
3월	218	174	18	13	9	2	2
4월	215	179	14	11	10	1	0
5월	212	168	16	14	12	2	0
6월	221	181	12	15	8	3	2
7월	202	167	16	11	7	1	0
8월	194	166	12	8	6	1	1
9월	167	135	12	9	8	0	3
10월	182	148	20	7	7	0	0
11월	180	153	12	9	3	1	2
12월	158	128	17	6	3	0	4
계	2,343 (100.0)	1,916 (81.8)	190 (8.1)	113 (4.8)	91 (3.9)	14 (0.6)	19 (0.8)

2. 매체별 현황

상담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 914건(38.1%), 방송 709건(29.6%), 인터넷 325건(13.6%), 통신 63건(2.6%), 월간지 3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신문매체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41.6%→38.1%), 방송(24.0%→29.6%)과 인터넷(11.8%→13.6%)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신문매체 내에서는 일간신문이 699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매체가 차지하는 상담비율이 2005년 8.5%, 2006년 11.8%, 2007년 13.6%로 상승하고 있다.

〈표 6-5〉 매체유형별 현황

* ()은 %

연도	구분 계	매체유형								총계
		일간신문	주간신문	방송	월간지	통신	인터넷	기타	불명	
2004(4.1~12.31.)	1,816	641	201	565	35	33	103	13	333	1,924
2005	2,353	780	234	595	57	76	215	10	561	2,528
2006	2,304	750	247	575	58	64	282	15	408	2,399
2007	2,343	699	215	709	31	63	325	24	330	2,396
계	8,816	2,870 (31.0)	897 (9.7)	2,444 (26.4)	181 (2.0)	236 (2.6)	925 (10.0)	62 (0.7)	1,632 (17.6)	9,247 (100.0)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3. 신청인별 현황

상담신청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1,368건((58.4%), 회사가 260건(11.1%), 일반단체가 178건(7.6%), 공공단체 72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개인상담이 대폭 증가하였고(47.0%→58.4%), 일반단체의 상담도 다소 증가하였다(5.9%→7.6%).

상담시 상담자 대부분이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여 익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 비율이 2006년도의 736건(31.9%)에 비해 대폭 줄어든 433건(18.5%)으로 상담시 위원회를 신뢰하며 상담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6〉 신청인별 현황

* ()은 %

연도	구분 계	신청인유형							불명
		개인	일반단체	회사	교육기관	종교단체	공공단체 등	기타	
2004(4.1~12.31.)	1,816	829	141	229	28	7	47	535	
2005	2,353	1,241	120	228	19	8	39	696	
2006	2,304	1,084	135	267	25	9	48	736	
2007	2,343	1,368	178	260	26	4	72	433	
계	8,816 (100.0)	4,522 (51.3)	574 (6.5)	984 (11.2)	98 (1.1)	28 (0.3)	206 (2.3)	4 (0.1)	2,400 (27.2)

4. 교육 현황

2007년 한 해 동안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언론사, 대학, 공공기업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총 7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교육이 35회(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12회, 대학 10회, 공·사기업 9회, 기타 6회였다.

교육내용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34회,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30회, 언론분쟁 롤플레이 8회였다.